

아동의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사회정보처리과정 : 해석단계와 반응결정단계를 중심으로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ccording to Sex and Types of Aggression of Children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 연구원 김 지 현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박 경 자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ellow : Jihyun Kim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Kyung Ja Park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differences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ccording to children's sex and types of aggression in response to instrumental and relational provocation factors.

Two hundred and fifty-one 4, 5, and 6 graders were selected from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To evaluate their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Crick, 1995; Fitzgerald & Asher, 1987) and Response Decision Instrument(Crick & Werner, 1998) were revised and analyzed. A peer-nomination measure(Crick, 1995; Crick & Grotpeter, 1995) was used to select aggressive groups. Data were subjected to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multivariate [2(sex: M, F) × 3(type of aggression: overt, relational,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alysis of variance.

Findings revealed that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attern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sex and type of aggression. Also aggressive children responded differently in their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ccording to instrumental and relational provocation factor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role of gender, aggression type, and provocation type are discussed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ing of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Kim,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4668 Fax: +82-2-363-8877 E-mail: jihyunkim@yonsei.ac.kr

주제어(Key Words) : 사회정보처리과정(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 도구적 자극(instrumental provocation), 관계적 자극(relational provocation)

I. 서론

아동은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또래 집단으로 사회적 환경이 확장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또래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선행 연구들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의 중요한 전조로서 또래 거부와 고립을 들고 있다(Kupersmidt, Coie, & Dodge, 1990; Parker & Asher, 1987). 아동기의 공격성은 또래 거부를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Coie & Dodge, 1998), 아동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적 어려움을 예측하는 행동적 요인이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Crick, 1996; Parker & Asher, 1987). 이에 공격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아동기 공격성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김지현, 박경자, 2006).

이제까지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남아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때리기, 밀기 같은 신체적, 외현적인 공격성에 관한 것이어서(Berkowitz, 1993; Parke & Slaby, 1983) 결과적으로 여아의 공격성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Crick & Dodge, 1994; Robins, 1986).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은 남아와 여아의 공격적 행동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외현적인 공격성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공격성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Crick et al., 1999), 남아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외현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여아에게 특징적 형태인 관계적인 공격성을 연구하고 있다(김지현, 박경자, 2006; Crick & Grotpeter, 1995).

여아의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여아가 그다지 공격적이지 않고(Bjorkqvist & Niemela, 1992), 여아들의 또래 관계에서 공격적인 상호작용이 남아만큼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정이 사실과 달라서 관계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포함하면 공격성에서 성차가 거의 나타

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5). 신체적인 손상을 입힘으로써 또래에게 해를 입히는 외현적인 공격성과는 대조적으로 관계적인 공격성은 우정 관계 혹은 또래 관계를 통제하거나 손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Crick & Grotpeter, 1995). 공격성의 형태에 따라 남아와 여아의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아 박영신(2004)과 이경희(1998)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외현적인 공격성을, 여아가 관계적인 공격성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김지현과 박경자(2006)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공격적 행동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선행연구들은 사회정보처리이론의 유용성을 주장해 왔다(Dodge & Crick, 1990). 사회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공격성을 포함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단서의 입력, 해석, 목표의 형성, 반응 탐색 및 결정과 같은 일련의 인지 과정의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Crick & Dodge, 1994). 이 이론에 의하면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정보처리의 각 단계에서 결핍이 나타나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가장 널리 연구된 과정은 해석 단계에 대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또래의 의도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귀인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또래의 의도에 관한 아동의 추론에 있어 개인차에 대한 연구들은 공격적인 아동들이 모호하고, 도구적인 자극 상황에 대해 적대적인 귀인 편견을 나타내어, 실제로는 의도적이지 않은 또래의 자극을 악의적인 의도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한준아, 2001; Crick & Dodge, 1996; 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 또한 공격적인 아동은 공격적이지 않은 아동보다 적대적인 단서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데(Dodge & Coie, 1987), 이러한 적대적인 귀인 편견은 아동들이 또래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임연진, 이은혜, 2000; Crick & Dodge, 1994).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정보과정의 단계 중에서 반응 결정 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가진다(Crick & Werner, 1998). 공격적인 아동들은 공격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끈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안적인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Crick & Dodge, 1996).

사회정보처리과정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최근 연구는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관계적인 공격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관계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은 관계적인 자극을 주는 에피소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도구적인 자극보다 관계적인 자극을 더 적대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반응 결정 시에도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Crick, Grotpeter, & Bigbee, 2002).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김지현과 박경자(2006)의 연구에서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외현적 공격성에는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과 정서조절이 영향을 미치고 관계적 공격성에는 사회정보처리과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사회정보처리과정이 다를 수 있고,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격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외현적 공격성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Coie & Dodge, 1998; Parke & Slaby, 1983), 여아들의 공격적 행동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Eron, 1987). 또한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을 조사한 연구들도 주로 또래 집단에 수용되지 못하는 남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아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공격적인 여아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자극의 유형에 따라 사회정보처리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인 자극 에피소드를 도구적 자극과 관계적 자극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이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도구적 공격적 자극에 대해서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중 해석단계는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관계적 공격적 자극에 대해서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중 해석단계는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도구적 공격적 자극에 대해서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중 반응결정단계는 아동의 공격성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관계적 공격적 자극에 대해서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중 반응결정단계는 아동의 공격성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1개 초등학교의 4학년 65명(남아 47명, 여아 18명), 5학년 93명(남아 56명, 여아 37명), 6학년 93명(남아 61명, 여아 32명)으로 총 251명이었다. 연구 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 164명(65.3%), 여아 87명(34.7%)으로 남아가 더 많았다.

이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서울시에서 중류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1곳을 임의 표집한 후 4 ~ 6학년에서 각 12학급씩 총 36학급에서 1,13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에 대한 또래 지명을 실시하였다. 또래 지명 검사 결과 각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명 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학급별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표준점수(Z점수)를 구하였다. 이와 같이 산출한 표준점수에 의해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점수가 학급별로 1 표준편차¹⁾ 이상인 아동을 각 집단에 선정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 69명(남아 51명, 여아 18명),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 69명(남아 18명, 여아 51명), 외현적·관계적 공격성이 모두 높은 아동 113명(남아 95명, 여아 18명)으로 집단 구분을 하였다(표 1 참조)²⁾.

〈표 1〉 성별 및 집단에 따른 연구 대상 아동 수

	남	여	전체
외현적 공격적 아동	51	18	69
관계적 공격적 아동	18	51	69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	95	18	113
전체	164	87	251

2. 측정 도구

1)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 지명 도구(Crick, 1995; Crick & Grotpeter, 1995)를 본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외현적 공격성에 관한

1) 또래 지명을 통해 공격적인 아동을 선정한 선행연구(예, Crick & Werner, 1998; Crick, Grotpeter, & Bigbee, 2002)에서 사용한 방법이며 정규분포곡선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는 대략 16%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격성 점수가 높은 상위 16%의 아동을 공격성이 높은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2) 선행연구의 경우 연구 목적에 따라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고(Crick, Grotpeter, & Bigbee, 2002) 그렇지 않은 경우(Crick & Werner, 1998)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이 빈도가 외현적 공격적 아동과 관계적 공격적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섯 문항(예,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차고, 주먹질 하는 친구),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여덟 문항(예,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친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친구)과 연구 목적과는 무관하나 부정적인 문항과의 균형을 위해서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네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대상 아동은 각 문항의 설명에 해당하는 반 친구를 성에 상관없이 세 명까지 지명하였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점수는 아동이 또래로부터 지명 받은 횟수를 합산하여 각 문항에 대해 학급별로 표준점수(Z점수)를 구한 뒤, 아동 개인별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산출한 표준점수에 의해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 점수가 학급별로 1 표준편차 이상인 아동을 각 집단에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현적 공격성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91, 관계적 공격성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95였다.

2) 사회정보처리과정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은 Crick(1995)과 Crick과 Dodge(1996)가 개발한 도구에 기초하여 해석 단계 측정 도구(Crick, 1995; Fitzgerald & Asher, 1987)와 반응 결정 단계 측정 도구(Crick & Werner, 1998)를 사용하였다.

해석 단계의 측정 도구는 8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이야기는 상대 아동의 의도는 모호하지만 아동에게 화를 유발하게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중 네 가지 이야기는 관계적인 자극(예, 아동은 친구가 자신이 싫어하는 다른 친구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에 관한 것이고 다른 네 이야기는 도구적인 자극(예, 아동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던진 공이 발밑으로 굴러 와서 넘어졌다)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이다. 아동은 각 이야기를 듣고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한다. 이 중 두 가지 질문은 자극을 제공한 상대 아동의 의도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 속의 또래가 한 행동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것으로, 아동은 주어진 상황에서 화가 나는 정도에 따라 '1점(전혀 화나지 않는다)'부터 '3점(몹시 화가 난다)' 중에 선택하였다.

반응 결정 단계의 측정 도구는 상대 아동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극을 제시한다. 여섯 개의 이야기 중 세 개의 이야기는 도구적인 자극에 관한 것이고 다른 세 가지 이야기는 관계적인 자극에 관한 것이다. 반응 결정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동은 각각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에서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전략,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전략, 친사회적인 전략의 유용성을 평가 했다. 반응 결정 단계를 측정하는 문항은 반응 선택(1문항), 결과 기대(6문항), 반응 평가(3문항)의 10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응 선택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에서 아동들은 각 이야기 마다 외현적 공격적 반응 전략, 관계적 공격적 반응 전략, 친사회적 반응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을 사용할 지를 선택했다. 1번은 외현적 공격적 반응 전략, 2번은 관계적 공격적 반응 전략, 3번은 친사회적 반응 전략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결과 기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질문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질문 유형은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전략,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전략, 친사회적 전략을 사용해서 원하는 목표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1점(아니오)과 2점(예)으로 평가한다. 두 번째 질문 유형의 경우 각 전략을 사용했을 때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1점(좋아하지 않는다)과 2점(좋아한다)으로 평가한다. 높은 점수는 특정한 전략(예,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전략,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전략, 친사회적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기대를 보여준다. 반응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서 아동들은 각각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1점(나쁘다)과 2점(좋다)으로 평가한다. 높은 점수는 주어진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반응선택, 결과 기대, 반응 평가로 측정한 반응결정단계는 반응선택, 결과기대, 반응 평가의 외현적 공격적, 관계적 공격적, 친사회적 점수가 각각 합해져서 반응 결정 단계-외현적 공격적, 반응 결정 단계-관계적 공격적, 반응 결정 단계-친사회적 점수로 사용이 되었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의 각 단계에서 측정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사회정보처리과정의 측정 내용

사회정보처리과정		측정 내용	
1. 해석 단계	의도	각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래의 행동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에 대한 아동의 생각	
	정서	각 이야기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	
2. 반응 결정 단계	반응 선택	외현적 공격적, 관계적 공격적, 친사회적 반응 전략 중 어느 전략을 사용할지 측정	
	결과 기대	각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반응 평가	각 전략을 사용했을 때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에 대한 기대	
		반응 평가	각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동의 평가

3. 연구 절차

본 조사의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아동 251명이었다. 연구를 위해 본 연구자와 사전에 훈련된 아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2명이 대상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4 ~ 6학년 아동 1,139명을 대상으로 토래지명 검사와 사회정보처리과정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한 학급의 학생을 8 ~ 10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질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하도록 하였고, 아동이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5분이었다.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지는 토래지명검사와 함께 초등학교 4 ~ 6학년 1,139명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토래 지명 검사를 통해 공격성이 높게 나온 아동만을 뽑아서 사회정보처리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아동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내용(Crick & Werner, 1998)과 초등학교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초등학교 전체 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정보처리과정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1,139명 아동의 토래 지명 검사 점수를 학급별로 계산한 뒤 학급별로 토래 지명 점수가 1 표준편차 이상인 아동 25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을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모형 검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사회정보처리과정의 각 단계에서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회정보처리과정 단계별 점수에 대한 성(2) × 공격성 유형(3)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후 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극에 대한 의도귀인 점수의 평균은 9.8점이고, 정서적 반응의 평균 점수는 8.7점이었다. 관계적 공격적 자극에 대한 의도귀인의 평균은 10.9점이고 정서적 반응의 평균 점수는 7.8점이었다. 의도귀인의 가능 점수 범위는 8 ~ 12점으로 도구적 자극에 대한 의도귀인의 평균이 9.8점, 관계적 자극에 대한 의도귀인의 평균이 10.9점으로 중간(12점)보다 낮아 주어진 단서를 의도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반응의 가능 점수 범위는 4 ~ 12점으로 도구적 공격적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8.7점으로 중간(8점)보다 높았고 관계적 자극의 정서적 반응은 7.8점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되어 관계적 자극보다 도구적 공격적 자극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조금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 결정 단계에서 대상 아동은 친사회적 반응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도구적 공격적 자극에 대해서 관계적 공격적 반응보다는 외현적 공격적 반응을 좀 더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도구적 자극에 대해서 친사회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계적 공격적 반응보다는 외현적 공격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관계적 자극에 대해서는 관계적 공격적 반응을 외현적 공격적 반응 보다 좀 더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관계적 자극에 대해서 친사회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현적 공격적 반응보다 관계적 공격적 반응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의 경우 토래 지명법을 사용하여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Z점수가 사용되었지만 <표 3>에서는 이해를 돕고자 원점수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공격성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의 문항 평균이 4.2점, 관계적 공격성의 문항 평균이 3.6점이었다. 이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아동이 한 반에서 각 문항당 4명 정도에게 공격적이라고 지명 받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III.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가능한 점수 범위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사회정보처리과정의 하위 영역 중 해석 단계의 점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주어진 단서를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의도귀인과 정서적 반응에 대한 점수로 구성이 되는데 의도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 대한 주어진 단서를 의도적으로 해석하며 정서적 반응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어진 상황에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적 공격적

<표 3>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251)

측정변인	도구적 공격적 자극		관계적 공격적 자극	
	M(SD)		M(SD)	
사회 정보 처리 과정	해석 단계	의도 9.8(2.3)	정서 8.7(2.0)	7.8(2.0)
	반응 결정 단계	외현적 공격성 10.5(1.8)	관계적 공격성 9.9(1.5)	친사회적 17.6(2.9)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	24.9(24.8)		
	관계적 공격성	28.5(22.2)		

〈표 4〉 해석단계 점수의 공격성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변량분석 결과

(N = 251)

연구집단			평균(표준편차)			F	
			외현적 공격적 집단 (n = 69)	관계적 공격적 집단 (n = 69)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집단 (n = 113)		
사회정보처리과정	도구적	해석	의도귀인	9.2(1.9)	9.8(2.0)	10.1(2.5)	1.98
	자극	단계	정서적 반응	8.4(2.0)	8.7(1.9)	8.8(1.9)	1.17
관계적	해석	의도귀인	10.6(2.6)	10.8(2.4)	11.2(2.3)	2.50	
	자극	단계	정서적 반응	7.1(2.0) _b	8.0(2.0) _a	8.0(2.0) _a	3.53*

주. a, b는 Scheffé 검정 결과 유의한 차가 나타난 집단임.

* $p < .05$.

2. 공격성 유형과 성별에 따른 정보처리과정의 차이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보이는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차이를 해석단계와 반응결정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해석단계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 중 해석 단계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격성 자극 에피소드별로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5). 해석단계는 모호한 상황에 대한 의도귀인과 정서적 반응으로 측정을 하였다. 우선 도구적 자극에 대한 의도귀인과 정서적 반응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도구적 자극에 대한 의도귀인과 정서적 반응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외현적, 관계적, 외현적·관계적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관계적 자극에 대한 의도귀인점수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 의도귀인에서 성($F_{1, 245} = 8.42, p < .05$)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관계적 공격적 자극에 대한 모호한 상황에서 여아가($M = 11.3$)가 남아보다($M = 10.7$) 의도적으로 귀인을 하였다(표 5 참고).

관계적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대한 결과에서는 공격성 유형($F_{2, 245} = 3.53, p < .05$)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공격성 유형의 사후검증 결과 외현적 공격성 집단, 관계적

공격성 집단,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관계적 공격적 에피소드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이 외현적 공격적 아동보다, 관계적 공격적 아동이 외현적 공격적 아동보다 더 화가 난다고 대답했다(표 4 참고).

2) 반응결정단계

아동이 외현적 공격적 반응, 관계적 공격적 반응, 친사회적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측정하는 반응결정단계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격성 자극 에피소드별로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반응결정단계의 이원변량분석결과 도구적 자극의 친사회적 반응결정에서 성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 245} = 3.67, p < .10$). 그러나 외현적 공격적 반응결정과 관계적 공격적 반응결정에서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도구적 자극에 대해 여아($M = 18.3$)가 남아($M = 17.3$)보다 친사회적 반응을 많이 선택했다.

한편, 관계적 자극에서는 외현적 공격적 반응결정에서 성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 245} = 6.36, p < .05$). 그러나 관계적 공격적 반응결정과 친사회적 반응결정에서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

〈표 5〉 해석단계 점수의 남녀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변량분석 결과

(N = 251)

연구집단			평균(표준편차)		F	
			남 (n = 164)	여 (n = 87)		
사회정보처리과정	도구적	해석	의도귀인	9.7(2.3)	9.8(2.2)	0.12
	자극	단계	정서적 반응	8.7(2.0)	8.7(1.9)	0.08
관계적	해석	의도 귀인	10.7(2.4)	11.3(2.4)	8.42*	
	자극	단계	정서적 반응	7.6(2.1)	8.1(1.9)	2.55

* $p < .05$.

〈표 6〉 반응결정단계 점수의 남녀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와 변량분석 결과

(N = 251)

연구집단			평균(표준편차)		F	
			남 (n = 164)	여 (n = 87)		
사회정보처리과정	도구적	반응	외현적 공격적	10.7(1.9)	10.1(1.4)	0.01
	자극	결정	관계적 공격적	10.0(1.6)	9.7(1.3)	0.47
		단계	친사회적	17.3(3.1)	18.3(2.5)	3.67 ⁺
관계적	반응	외현적 공격적	10.0(1.4)	9.5(0.9)	6.36*	
	자극	결정	관계적 공격적	10.2(1.8)	9.8(1.1)	1.95
		단계	친사회적	17.5(3.3)	18.3(2.6)	1.49

⁺ $p < .10$. * $p < .05$.

았다. 즉 관계적 자극에 대해 남아($M = 10.0$)가 여아($M = 9.5$)보다 외현적 공격적 반응을 많이 선택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유형과 성에 따라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정보 처리과정을 측정하는 자극 유형(도구적 자극과 관계적 자극)에 따라서 외현적 공격적 아동, 관계적 공격적 아동,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이 다르게 반응하는지, 남아와 여아가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해석단계의 의도귀인은 관계적 자극에 대해서 성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정서적 반응은 관계적 자극에 대해서 공격성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관계적 자극에 대해서 여아가 남아보다 모호한 상황을 더 의도적으로 해석했으며,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이 외현적 공격적 아동보다, 관계적 공격적 아동이 외현적 공격적 아동보다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많이 보였다. 이는 여아가 주로 관계적인 자극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관계적 공격적 아동이 외현적 공격적 아동보다 관계적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rick, 1995, 1996). 그러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외현적 공격적 집단보다 관계적 자극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을 구분하여 살펴본 외국의 선행 연구들은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집단은 도구적 자극에,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집단은 관계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rick & Werner, 1998). 공격성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Crick과 Grotper(1995)의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온 집단은 전체의 27.3%였고 대다수의 공격적 아동은 외현적 공격적이거나 관계적 공격적으로 구분이 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두 가지 유형의 공격성이 모두 높은 집단에 대한 특성은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관계적 자극에 대해서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이 외현적 공격적 아동보다 더 의도적으로 해석한다는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아동의 특성이 관계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계적 공격적 아동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의 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이 우리나

라 아동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인지 앞으로의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구적 자극에 대해서 해석단계 중 의도귀인과 정서적 반응은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라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는 이제까지 정보처리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임연진, 이은혜, 2000; 한준아, 2001).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공격적 자극의 종류를 나누어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도 도구적 자극과 관계적 자극으로 나누지 않고 해석단계에 대한 공격성 유형과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공격성 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도구적 자극에 대한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다는 대상 아동이 관계적 자극의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더 의도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반응 결정 단계는 도구적 자극에 대해서 친사회적 전략에서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관계적 자극에 대해서 외현적 공격적 전략에서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도구적 자극에 대해서 여아는 남아보다 친사회적 전략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관계적 자극에 대해서 남자는 여아보다 외현적 공격적 자극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여아가 친사회적 반응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자가 외현적 공격적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Crick & Werner, 1998).

그러나 본 연구의 반응 결정 단계에서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외현적 공격적 아동은 외현적 공격적 전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관계적 공격적 아동은 관계적 공격적 전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구적 자극에 대한 외현적 공격적 전략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 아동의 점수가 관계적 공격적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보처리능력을 살펴본 임연진과 이은혜(2000)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정보처리과정에서 1학년 보다 3학년 아동이 비 공격적인 반응을 더 많이 산출해 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본 연구대상 아동의 경우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에서는 공격적이지 않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해당하는 전략을 질문지에서 선택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아마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관계적 자극에 대해서는 사회정보처리과정의 관계적 반응 전략을 측정하는 문항이 아동이 사용하는 관계적 공격적 전략을 민감하게 측정하게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너랑 친구 안할래.” 라는 문항을 선택했을 때 관

계적 공격적으로 반응한다고 측정하였는데 이것이 아동이 사용하는 다양한 관계적 공격적 반응 전략을 포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너랑 친구 안할래.” 라는 반응이 어떤 아동에게는 관계적 공격적 반응으로 해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한 개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아동의 정보처리과정의 차이를 보고했지만(임연진, 이은혜, 2000)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비교하여 아동의 정보처리과정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정보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상적인 사회적 상황을 제공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외현적 공격적 전략, 관계적 공격적 전략과 친사회적 전략이 객관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아동이 생각하는 다양한 종류의 공격적 전략을 포함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민감하게 공격적 전략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질문지를 통한 측정법이 외에 관찰을 통한 공격적 행동과 전략의 측정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외현적·관계적 공격적 집단이 전체의 45% 정도로 많았지만 이 집단의 특성을 선행 연구와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국내의 경우 공격성의 유형을 나누어 정보처리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고, 외국 연구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대부분의 아동은 외현적 공격적, 관계적 공격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5). 또한 본 연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격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친사회성 점수도 낮게 나타나서 긍정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친사회적이지 않고 무기력한 집단의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아동이 보이는 공격성 유형에 따라 사회정보처리과정 이외의 다른 변인, 예를 들어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정서조절 등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별과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서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차이가 있고, 특히 아동의 사회정보처리과정을 도구적 자극과 관계적 자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김지현, 박경자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박영신 (2004).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학교 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희 (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연진, 이은혜 (2000).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8(1), 9-23.
- 한준아 (2001).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에 있어 공격적 아동과 친사회적 아동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rkowitz, L.(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 Bjorkqvist, K., & Niemela, P.(1992). New trends in the study of female aggression. In K. Bjorkqvist & P. Niemela (Eds.), *Of mice and women: Aspects of female aggression* (pp. 1-1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oie, J. D., & Dodge, K. A.(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 (Eds.), W. Damon (Serie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New York: Wiley.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ck, N. R.(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ick, N. R., & Dodge, K. A.(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ck, N. R., & Dodge, K. A.(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Crick, N. R., Grotpeter, J. K., & Bigbee, M. A.(2002). Relationally and physically aggressive children's intent attributions and feelings of distress for relational and instrumental peer provocations. *Child Development*, 73, 1134-1142.
- Crick, N. R., & Werner, N. E.(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Crick, N. R., Werner, N. E., Casas, J. F., O'Brien, K. M., Nelson, D. A., Grotpeter, J. K., et al.(1999). Childhood aggression and gender: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In D. Bernstein (Eds.), *Gender and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5. (pp. 75-141). Lincoln, N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 Coie, J. D.(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46-1158.
- Dodge, K. A., & Crick, N. R.(1990).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bases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3, 1146-1158.
- Eron, L. D.(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 435-442.
- Fitzgerald, P., & Asher, S. R.(1987). Aggressive-rejected children's attributional biases about liked and disliked pe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1990). The role of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74-30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 R. D., & Slaby, R. G.(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P. 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Vol. 4. Socialization and personality processes(pp. 547-642). New York: Wiley.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Quiggle, N., Garber, J., Panak, W., & Dodge, K. A.(1992).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Robins, L.(1986). The consequences of conduct disorders in girls. In D. Olweus, J. Block, & M. Radke-Yarrow (Eds.),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pp. 385-409). New York: Academic Press.

접 수 일 : 2008년 9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8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2일